



佛빛 밝히고 정진 화합 한마음

부산 미타선원 개산문예축전 현장

불자와 지역민들의 정성등(精誠燈)이 하나하나 모여 시방세계를 밝히는 무량광(無量光)으로 빛났다. 용두(龍頭), 용의 머리를 타고 나타난 기룡관음(騎龍觀音)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과 용두산 공원 일대에서 10월 26일부터 사흘간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밝히는 '佛빛 축제'가 열렸다. '함께 밝히는 용두산 佛빛 등대'를 주제로 한 미타선원 개산문예축전. '놀토' 마다 희상 스님(동국대 강사)에게 그림 지도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그림 전시회, 용정다원의 그윽한 차향기와 따뜻한 한 잔의 차, 하늘의 빛을 옮겨 놓은 듯 색의 별난 맛을 보여주는 풍영이 천연염색 전시회, 현대복스와 클리어 마인드의 불교 사적 전시, 놀토문화강좌 자모회에서 만든 천연비누 바자회 등. 불자들이 준비해 내놓은 작품들이 절과 공원길을 가득 채웠다.

올해 처음으로 대형 축제를 마련한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은 "산문을 열고 부처님의 수행도량으로 천만년 이어나가겠다는 불자 모두의 발원을 담아 개산(開山)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라며 "모두의 개산대제이며 불자들이 연 산문의 공덕으로 세상이 밝아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사흘간의 축제는 일사불란하게 이어졌고 불자와 지역민들은 더 친근해졌다.

#법문

26일 오후 7시 30분. 노을과 함께 붉게 변한 바다 위로 떠오르는 둥근 달이 미타선원 신도들의 정성이 모인 삼천동 위로 밝게 빛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밝혔다. 회堂的 삼천동 아래 모인 미타선원과 안국선원 신도 그리고 지역민들은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수불 스님은 "분명한 눈앞의 일을 알지 못하고 등지고 살고 있는 삶의 어리석음은 누구의 탓이겠습니까"라 묻은 뒤 "한 순간이라도 어찌 소홀히 시간을 흘려보내리오. 가르침의 일을 찾고 또 찾으니 수미산의 일이 눈앞에 드러나는 구나"라며 화구를 섰했다.

#화합

축제가 이틀째로 들어서며 새롭게 장식된 부산 광복동 거리가 한층 뜨거워졌다.

미타선원에서 숙우회의 자하(紫霞) 환공다례와 영산법회를 상징하는 불교의식 영산재가 열리는 동안 시민들은 귀한 구경을 한다는 듯 몰려들었다. 이어진 미타을 약회와 미타불자 한마당은 가을밤을 수놓는 음악의 향연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는 잔치 한마당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체험

'사찰음식으로 만나는 부처님' 코너를 통해 사찰음식 연구가 홍승 스님은 도시인들이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자연이 주는 여러 요소들을 함께 깨닫게 해주었다. 또 시민선학 안심당에서 진행된 선방체험에 동참한 불자와 시민들은 잠시나마 스스로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는 시간에 흠족해했다. 달마그리기 체험에서도 눈으로 구경만 하던 달마도를 직접 그려보면서 선화의 세

계가 갖는 오묘함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시간이었다. 김옥현(부산시 사상구) 불자는 "달마 스님의 우락부락한 얼굴이 무서웠는데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니 존경스럽고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짐

축제의 마지막 순서는 다짐이었다. 개산대제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출발이며 그 미래의 시간도 울고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시간임을 모두 함께 인식하는 시간. 지하 스님(前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을 전계사로 보살계를 받는 자리에서는 동참자 모두가 산문의 주인공임을 알고 깨달음(覺)과 바름(正) 그리고 청정함(淨)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의 다짐이야말로 또 다른 '개산', 자신의 마음을 여는 거룩한 의식이었다.

글·사진=하성미 기자



수불 스님 초청법회.



외국인들도 전진한 모습.



하림 스님과 함께한 발우공양 체험.



연등을 밝히며 '축제 시작'.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영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 108영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흑단무늬목영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74 승영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격의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금강약들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 이상의 열과 생광선이 발생되어 원격의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 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썩뚝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격의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격의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냉하신분 ◆손,발이 차신분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허약한 氣회복 ◆생리통, 허리통증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 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강약들 온열복대 식약청 의로기기 05-0626호 인증
온열복 의로기인증 전지파 환경인증
LIG배상보험 가입 실용실안출력 원

썩뚝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뚝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께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격의선 "열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배, 허리, 발바닥 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압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로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73 정애영 / 일일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보살보살보살
관세음보살보살보살
묘법연화경 요품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살품)
(지장보살보살품)
크기: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 35 × 50cm
(대) 42 × 65cm
60 × 20cm

움마니반 메를족자
60 × 20cm